



정교회 주보



성탄 축일 다음 주일

성모 연관 축일, 성 에프티미오스 주교순교자
제 2조, 조과복음 5

(조과에서 성탄 카타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성탄 축일 제 2응송 / 214, B 251
- 제 2조 부활 찬양송 / 81, A 212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탄 축일 찬양송 / 214, B 251
- 성당 찬양송
- 성탄 축일 시기송 / 214, B 253
- 사도경 : 갈라디아 1:11~19 / 217, 봉독서 287
- 복음경 : 마태오 2:13~23 / 217, B 259
- 성탄 축일 성모송 / 216, B 257
- 성탄 축일 영성체송 / 216, B 257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성탄 축일 찬양송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2021년 성탄절 메시지



진리를 찾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항상 진리를 구하며 다녔습니다.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그들이 가졌던 질문은 항상 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씨앗들은 찾았으나, 진리 그 자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 구세주가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진리를 찾았»습니다. (성탄절 엑사쁘스떨라리온 중) 이 성가의 작가는 진리를 찾은 것에 대해 큰 기쁨과 거룩한 열정을 표현합니다. 그의 기쁨과 열정은 너무도 타당한데, 성 요

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이 말씀하시듯 «진리보다 더 강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아와 요한 두 사도가, 육화하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이래로, 세세대대에 걸쳐 모든 신자들은 이제 첫 사도 안드레아와 같은 열의를 가지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요한 1:42)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삶과 천상의 삶에 있어서, 계시되어 밝혀진 진리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진리는 이데올로기나 철학

적 이론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필립비 2:9)이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심»을 믿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의 진리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일부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전부 찾은 것입니다. 예전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요한 18:38)라고 물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의문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리요»(요한 14:6)라고 선언하신 분의 삶과 가르침에서 진리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계시되어 밝혀진 진리를 아직까지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진리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거나, 그들이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혹은 진리에 대해 좋지 않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전자 문명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진리에서 떠났고»(2디모테오 2:18 참조), 그래서 오늘날 진리는 가짜뉴스의 확산과 함께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 기만, 특정 이익과 편향에 맞게 쓰는 언론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의 확산, 선전선동(프로파간다)의 확산, 특정 인물이나 특정 기관을 말살할 목적으로 타겟을 정해 공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의 교회를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해서 «우리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도록»(갈라디아 2:14 참조)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탄생하실수록, 즉 더 많은 사람

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수록, 거짓말과 다양한 음모를 퍼뜨리는 이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음모들과 이기적인 방편들과 온갖 종류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이념에 지친, 또 이런 것들을 믿어 피해를 당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알게 되고, 당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모든 종류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도록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기쁜 축일을, 올해도 전염병의 폭풍우 속에서 맞이합니다. 더욱이 지금 세계 공동체는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크게 불안해하면서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인내와 참을성을 시험하고 그들 마음속에서 기쁨을 거두어가려 합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지상에 있는 그분의 창조되지 않은 교회의 진리를 충실하고 올바르게 따르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요한 16:22 참조).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직자들과 협력자들의 따뜻한 축일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과 진리»(요한 1:17 참조)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그리하여 «진리의 성령과 사람을 속이는 악령을 가릴 수» 있기를(1요한 4:6)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고 축복된 성탄절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4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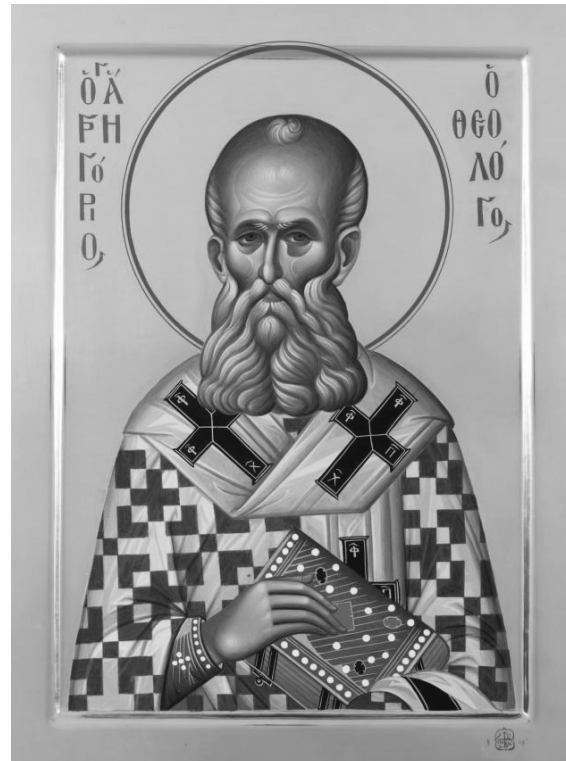


“그리스도 탄생을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지어다!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높일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더 태어나시니
어둠이 사라집니다. 또 다시 세상의 빛이
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무지의 어
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 모두가 이제 지식
의 빛을 바라보게 합시다. 낡고 오래된 것
은 지나가버렸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
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늘에서 어머니가 없
는 분이 이제 땅 위에서 아버지 없이 태어
나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무너집니
다. 왜냐하면 하늘 위의 세계가 백성들로
가득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없는 그분이 사람이 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로고스)이신 분이 몸을 취하십니
다. 보이지 않는 분이 볼 수 있게 나타나십
니다. 어떤 손도 접촉할 수 없는 분이 (아
기로서) 만져집니다. 처음도 끝도 없이 영
원하신 분이 이제 시작되십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곧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히브리 13:8)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오, 성부의 말
씀이신 분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
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내 육체를 위해 그



분이 육체를 취하십니다. 내 영혼을 위해
그분이 이성적인 영혼과 연합하십니다. 그
분은 죄만 빼고는 모든 면에서 사람이 되
십니다. 오, 기이한 결합이여! 스스로 존재
하시는 분이 존재 안으로 들어오십니
다. 창조되지 않은 분이 창조되십니다. 그
분이 내 살(육신)의 가난을 함께 나누시
니, 이로써 내가 그분 신성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
을 찬미하나이다!

아타나시아



대교구

■ 스테파노스 황경수 신부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12월 27일 축일을 맞이하시는 스테파노스 황경수 신부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양떼를 오래도록 영적으로 올바르게 인도해주시길 기원합니다.

■ 신년, 신현축일 예배 일정

2021년 12월 31일(금)

오후 5:00 ~ 6:00 - 축일 대만과

2022년 1월 1일(토)

오전 8:45 ~ 10:00 - 축일 조과

오전 10:00 ~ 12:00 -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2022년 1월 5일(수)

오전 9:00 ~ 10:30 - 신현축일 대시과

오후 5:00 ~ 7:30 - 신현축일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2022년 1월 6일(목)

오전 8:45 ~ 10:00 - 신현축일 조과

오전 10:00 ~ 11:30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찬예배

오전 11:30 ~ 12:15 - 신현축일 대성수식

(각 지역성당의 예배시간은 각 지역성당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 신자총회 공고

신자총회가 부산, 전주, 울산 성당에서는 2022년 1월 9일 주일 성찬예배 후, 서울, 인천, 춘천 성

당에서는 2022년 1월 16일 주일 성찬예배 후 있을 예정입니다. 2021년도 결산과 영적사업의 결과와 2022년도 예산과 영적사업을 의논할 것입니다.

부산 성모희보 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12월 17일(토)에 이사야 배준한 교우가 세례 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세례를 축하합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축일

지난 12월 17일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축일을 맞이하여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는 18일(토)에 성당에 오셔서 먼저 주일학교 학생들과 특별 프로그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크리스토퍼 신부와 함께 학생들은 성당 외부에 성탄절 장식을 하였습니다. 대주교께서는 축일 대만과 및 아르토클라시아 예식을 크리스토퍼 신부, 요한 박인곤 보제와 함께 집전하였습니다. 다음 날 주일에는 주일조과와 성찬예배 후에 선교회관에서 디오니시오스 성인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는 디오니시오스 성인의 위대한 용서의 미덕을 배우고 닮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축일과 성탄절을 기념하는 선물과 간단한 식사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축일 행사를 마쳤습니다. 축일을 준비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간예식

12월 27일(월) 성 스테파노스 대보제 첫 순교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